

도, 2036 하계올림픽 · 패럴림픽 유치 본격

국제 외교 · 국내 협력 강화... IOC와 면담 등 추진
패럴림픽 독립 개최 계획 수립... “포용올림픽 실현”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외교 및 국내 협력을 본격화한다.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패럴림픽 개최 계획 수립,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소통 등 3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전북자치도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패럴림픽을 독립된 국제 스포츠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2036 전주 하계패럴림픽대회 개최 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 단순한 부속 행사가 아닌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대회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방침이다.

하계 패럴림픽 개최 계획의 주요 방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포용올림픽’ 실현 △유니버설 디자인(모두를 위한 설계) 적용 △무장애 환경 구축 △대회 이후 지속 가능한 유산(레거시) 창출 등이다.

도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통합 운영해 대회의 효

율을 높이는 동시에,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력 논의... “경쟁을 넘어 동반자”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7일 서울특별시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자치도는 1988 서울 올림픽의 성공 경험을 활용해 한국이 올림픽 개최 경험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최 비용 절감과 유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가 2032 하계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쌓은 실무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두 도시 간의 협력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경기장 시설 사용 등 전북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대한민국 전체의 도전이며, 서울시와의 협력은 한



조영식 전북특별자치도 2036 하계올림픽 유치추진단장이 2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국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쟁이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 IOC 방문... 유치 의지 공식 표명

전북자치도는 국제 사회를 향한 유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는 8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를 방문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전북의 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국제 사회에 유치 의지를 공식 표명하는 자리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동행해 한국 스포츠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김 지사는 IOC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 △유산(Legacy) △사회적 연대

를 반영한 전북의 올림픽 유치 전략을 강조하며, △기존 인프라 활용 △도시 간 협력 모델 구축 △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탄소중립 대회 운영 등의 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의 문화적 매력과 전북이 보유한 K-컬처 경쟁력을 소개하고, 올림픽 이후 지속 가능한 유산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OC 올림픽게임부서의 ‘미래올림픽게임유치팀’과 별도 회의를 진행해 IOC의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제 유치 활동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패럴림픽 독립 개최 계획, 서울시와의 협력, IOC 면담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며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유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전북이 2036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영식 추진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발전의 호기를 삼을 이번 2036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김관영 지사와 함께 4월 7일 스위스 로잔으로 떠난다면 비장한 각오로 전북에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성운 의원
“윤석열 탄핵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 법제사법위원회)은 2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월 4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8대0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며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1차례 헌재에 출석하며 심판 절차를 지켜봤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 시절부터 검찰 조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으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수사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권한을 위헌적으로 행사하려 했다고 지적하며, “특전사령관에게 직접 위치를 묻고 지휘를 하는 등 수사 지휘하듯 계엄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시민과 국회, 언론의 공조로 계엄이 무산되자 윤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비겁했다”며 “스스로도 변론을 거듭할수록 가량이 없음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가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교통 소외 해소 기대”

도내 정치권,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표명
민주 도당 “균형발전 촉진 위한 제도적 강화 최선”
도의회 “광역교통망 확보 위한 예산 지원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의 숙원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 도당 “전북 교통 소외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철수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가 전북의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광법은 수도권 중심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대도시권의 광역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지역 대상이 광역시로 한정되어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그동안 교통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전북은 광역 교통망 확충과 국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이번 대광법 개정을 시작으로 전북의 소외와 차별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제도적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회 “광역교통망 확보 위한 예산 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이날 대광

‘대학, 지역 혁신의 중심’ ... 도, 2025년 RISE 추진

총 1301억원 투입
청년 정착 등 목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삼는 ‘202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성호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청년과 산업을 함께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RISE 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도는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했으며, 서면 평가와 대면 심사를 거쳐 4월 말 최종 선정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2025년 전북 RISE 사업에는 총 1,301억원(국비 1,076억원, 도비 22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836억원이 이번 공모를 통해 도내 대학에 배분되며, △지역산업 성장 △청년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 지원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4대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먼저,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은 전북의 8대 전략산업(농생명·의생명·청정에너지·첨단소재·모빌리티·디지털·문화관광·생명서비스)을 중심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이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해 신산업을 주도하는 R&D 허브로 자리잡도록 지원한다.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프로젝트는 도내 주력산업에 맞춘 현장형 인재를 키우고,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해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글로벌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가치 확산(JB-EverLearn)”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설립해 중장년·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상권 활성화, 고교-대학 연계 교육,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26.6%인 도내 대학 졸업생의 정주 취업률을 2029년까지 29%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연간 평균 500여 명의 청년이 추가로 지역에 정착하는 효과를 가져와, 5년간 약 2,500명의 청년이 지역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도내 기업 500여 곳에 실질적인 인력 공급이 가능해지고, 매년 8,000~1만명에 달하는 청년 인구 유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늘어나면 대학의 경쟁력도 함께 상승한다. 지역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지역 대학의 진학률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대학의 입학 경쟁력과 충원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5년 동안 추가로 정착하는 청년 2,500명이 1인당 연간 약 900만 원을 소비한다고 가정하면, 총 225억 원 이상의 소비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주거·교육·교통·문화 등 지역 내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서면 평가와 대면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 평가에는 도내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교육부 RISE센터의 전문가 풀도 활용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몽골 날라이흐구 방문단과 협력 강화 논의

남원시의회(의장 김영대)는 2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날라이흐구가 몽골 국가 대외의 결의안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도시로 승격, 그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진 지역을 둘러보고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남원시 의회를 방문한 것이다.

날라이흐구 미그마르수렌 부구청장은 남원시의 농업, 문화·관광 정책과 계절 근로자 운영 사례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신재생에너지, 폐기물관리, 노동력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지역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남원=김기우 기자

“디지털 취약계층 향안 포용정책, 과감히 실행해야”

최형열 도의원, 오늘 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서 촉구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전주시 제5선거구)은 3일 열린 제417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키오스크 공포증’ 해소를 위한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형열 의원은 “길거리 음식점, 병원, 지하철역, 공공기관 어디를 가도 키오스크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은 복잡한 화면 구성과 조작 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들을 언급하며, 전북형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잡한 화면 구성과 조작 방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형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들을 언급하며, 전북형 디지털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7일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를 열고 회기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상정기로 했으며 이중 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헌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 조례안,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군산=이재춘 기자